

우리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지성의 언론을 열겠습니다.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발행인 부만근 | 주간 김진영 | 편집장 곽성민

제주시 아라 1동 1번지(690-756) | 전화: 754-2278~9(FAX 756-2204) | 인쇄: 제일일보사

2004년 10월 6일 수요일 제723호

## 캠퍼스 곳곳 '방치 쓰레기' 신음

### 공사 폐기물·쓰레기 등 가득... 당국 관리소홀 지적



▲ 자연대학 2호관 주차장 옆 공터에는 '쓰레기통을 버리지 마시오'라는 풋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폐기물과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돼 있다.

또한 흙더미나 폐아스콘은 버리기 전에 잠시 방치해 둔 것이라 보기엔 봉우리가 생길 정도로 그 양이 많았다. 게다가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있는 폐아스콘도 있어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게다가 이곳에는 흙더미, 폐아스콘뿐만 아니라 목재, 석재 등이 널부러져 있고, 지난 3월에는 한라터에 쓰러져 있던 농구대도 버려져 있었다.(본지3월 10일자,

했다.

쓰레기로 가득찬 산책로는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도내외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버려진 폐기물로 인해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추석연휴를 맞아 우리대학 산책로를 찾은 김동주(23, 경북대학)학생은 "삼립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제주대의 산책로가 좋다"며 "하지만 산책로에서도 훤히 보이는 곳에 흙더미와 자재들이 버려져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교내 곳곳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보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학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학내 자연환경과 경관을 위해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지은 기자 jien8318@cheju.ac.kr

폐기물을 버리지 마시오'라는 풋말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건축 폐기물과 폐아스콘의 경우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처리시 매립장에 돈을 주고 폐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공터에 버려진 폐아스콘은 산책로 경관을 훼손시키며 그대로 방치

709호) 때문에 학내 폐기물 처리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시설과의 한 관계자는 "공사 중에는 흙더미 등 자재들을 한곳에 모아 이용해야 하는데 미망한 공간이 없어 이곳에 방치된 것 같다"며 "폐아스콘의 경우는 폐기물을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

2005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 경쟁률이 1.45대1로 나타났다.

입학취업과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수시2학기 모집마감 결과 1042명 정원에 1515명이 지원, 지난해 1.08대 1보다 조금 상승했다.

학과별 경쟁률을 보면 국어교육과가 4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해 8.75대1의 경쟁률로 보였으며,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은 3명 모집에 26명이 지원해 8.6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사회교육과 지역교육전공은 2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해 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의예과는 8명 모집에 63명이 지원해 7.88대 1, 수학교육 4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해 7.5대 1의 경

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디자인학과(문화조형디자인 전공)와 컴퓨터교육과는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사학과의 경우 0.11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러 정원외(특수교육대상자 전형과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전형은 98명 모집에 38명이 지원해 0.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

입학취업과 관계자는 "꾸준하게 실업계 고등학생을 초청해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보다 조금 상승한 모집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미달했던 특정과목 우수자 전형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학교장추천자 전형에 속

해 있던 사회봉사자 전형을 따로 분리한 결과 높은 지원율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수시모집 전형 유형별 지원자는 다음과 같다.

△ 특정 교과목 우수자 421명 △ 교사 추천자 341명 △ 사회봉사자 309명 △ 실업 고출신자 163명 △ 농어촌학교 136명 △ 학교장 추천자 53명 △ 취업자 33명 △ 예능 특기자 20명 △ 만학도 22명 △ 국가(독립) 유공자 13명 △ 농어민 및 선원자 1명 등이다.

전형일정은 오는 27일 실기고사를 시작으로 서류전형을 거쳐 다음 달 26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원지애 기자 fate0204@cheju.ac.kr

## 2학기 수시모집 1.45대 1

### 국어교육과 8.75대 1 최고

## 신분확인 제대로 않고 도서대출 버젓이

### '대출한 적 없다' 불만도... 본인 확인절차 강화해야

중앙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시 신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서 대출시 학생증을 이용해 대여가 이뤄지는데 학생증을 통한 본인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대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서 대출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서관 인터넷 게시판에는 도서를 대출하지 않았는데도 도서가 대출됐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글을 올린 학생은 게시판에 '책을 빌린 기억도 없고 학생증의 사진이 대부분 고등학교 당시

증을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 적도 없었는데, 제목도 전혀 모르는 책을 빌린 것으로 봐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이를 악용해 고가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경우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를 대출함에 있어 대출인의 신원은 꼭 확인하고 있으며 담당 직원과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증의 사진이 대조 등의 방법이 도입돼 보다 확실한 대출 절차가 이뤄져

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학생들의 도서 이용에 따른 태도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고가의 예술 책에서 훌륭한 그림이나 필요한 부분을 자기 미망대로 찢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도서의 경우 자기만 이는 곳에 책을 숨겨 놓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도서를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제주대 구성원 모두의 도서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성민 기자 sung@cheju.ac.kr

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학생들의 도서 이용에 따른

태도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고가의 예술 책에서 훌륭한 그림이나 필요한 부분을 자기 미망대로 찢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도서의 경우 자기만 이는 곳에 책을 숨겨 놓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도서를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제주대 구성원 모두의 도서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설부문 종학발전계획 학무회의 통과

시설부문 종합발전계획 연구원회(위원장 김홍수, 통신공학 교수)가 마련한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시설부문)'이 지난달 21일 학무회의를 통과, 평의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종합발전계획은 '제주대 비전

효율을 높이는 한편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 캠퍼스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용할 수 있고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 캠퍼스를 지향하기 위해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및 조경 공사 등 계획과 투자계획이 심의에 있다.

원지애 기자 fate0204@cheju.ac.kr

## 제주대학교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학년도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대학 특성화 부문 "최우수"  
대학경영 및 재정영역 "우수"

발전전략 및 비전영역 "우수"  
사범대학 "종합우수" 평가

■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9월9일 발표)에 9명이 합격했습니다.

고영준, 강석희, 조진용 (이상 경영학과)  
김봉현, 고행선, 고영보, 김현수, 진현우, 강경환 (이상 회계학과)

지금까지 제주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주대학교 대학사 자료수집 합니다.

종이물 / 간행물, 팁프렛, 학위증, 각종 신분증, 상장등  
사진 및 비디오 자료 / 앤솔, 각종 행사 및 활동사진, 캠퍼스사진, 필름 등  
기념품 및 비품 / 마크고고, 상패, 문전, 행사기념품, 페더트, 베지 등

문의: 제주대학교 총무과(TEL: 754-2073)



국립 제주대학교  
CHEJU NATIONAL UNIVERSITY

## 사설

## 공공의식은 학생의 최고 덕목

우리사회에 갖가지 잘못된 관습·관행에 대한 '생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질서·준법·근경질약 등 공공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애써 이룩한 일련의 개혁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학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공공기물에 대한 주인의식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덕목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점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 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학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중앙도서관 활용실태를 보자.

책 여기저기에 줄이 여려번 그어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잡지, 논문 등은 책 중간이 찢겨져 있다. 축쇄형으로 발간된 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찢어가는 바람에 폭수를 건너뛴 것도 많다. 정기간행물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집의 피해는 더하다. 책에 나서가 되었거나 납작지는 아래에 찢겨져 있다. 책자와 분리된 어학 테이프 자료도 찾기 힘들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미리 책을 산더미처럼 가져가 쌓아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 다른 이용자에게 책 읽기 기회를 뺏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다음 이용자들은 아랑곳 않고 책에 줄을 긁고 찢어가는 행동은 실종된 대학생들의 공공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함께 열람하는 도서관 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온통 낙서로 치장돼 있는 책상은 이기주의적 행태의 한 예와 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앙도서관 자료검색실과 전산정보원 컴퓨터에 연결돼 있는 미우스 같은 컴퓨터 기자재도 없어지기 일쑤다. 이러다보니 기물이 제대로 남아날 리가 없다. 모두가 이용하는 물건을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가짐이 아쉽기만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이 바로 공공기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버릇인데, 대학 사회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 그 악습의 현장은 캠퍼스 곳곳에서 눈에 띠어 '공공기물은 살던 것이 없다'고 할 정도다.

대학 캠퍼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다. 휴일날 대학 캠퍼스는 도민들의 각종 행사로 언

제나 민원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빠져나간 후 남은 것은 온통 쓰레기 뿐이다. 운동장, 잔디밭 곳곳은 물론 대학 건물 안까지 쓰레기로 물살을 훑는다. 우리의 공공의식은 왜 갈수록 이 모양인지 우리 모두, 특히 대학 캠퍼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쓰레기 속에 양심을 버리고 간 이용자들은 내년에도 뻔뻔스럽게 다시 이곳 캠퍼스를 찾을 것이다.

이는 더불어 시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 공공의식 부재의 책임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대학 사회의 어른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자기책임 영역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도 어떤 개선행위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란 사회관습으로 성립시켜야 할 도덕률을 개인의 행위규칙으로 만들고 이를 사설상 강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성립돼 온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대학 사회는 사회적 행위규칙 준수에 너무 많은 유예와 묵인·묵살의 과정을 가져왔다. 규칙을 공고히 해야 할 제도의 권위가 여기에서 훼손되고 나태해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의식도 높아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만 강해지고 공공의식은 파묻혀 버렸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매년 폐품이되는 이같은 현상은 모두 교육부재가 물고 온 결과다. 황금만능주의와 접수위주의 교육이 대학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선 공공의식 교육은 밭을 불일 틈이 없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을 주스로는 공공의식 캠페인을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계동활동을 펼쳐하고 공공의식은 물론 도덕지수를 높이는 교육을 보다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학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파기하면 그 결과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절망 모른다 말인가.

## 1면에 이어

기부한 발전기금은 학생 장학금과 교수연구기금, 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주)남영L&F는 1957년 창립해 여성 속옷만을 전문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는 여성 란제리 전문기

업이다. 남 회장은 제주외는 별다른 연고 없이 오직 후학 양성을 위해 제주대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험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대학교에 거금을 험척하게 된 이유를 "대학생들의 학문정진과 교수들이 연구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밝힌 남영 관계자는 "대학생들은

미래의 주역인 만큼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해 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사회활원 차원에 서라도 앞으로 후학들의 학문정진을 위한 장학금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호근기자 [journalist@cheju.ac.kr](mailto:journalist@cheju.ac.kr)

## 제주출신 재일교포의 대학 사랑

## 관서도민협회, 33년 동안 도서 6천여권 전달



▲ 양철사 회장이 도서기금 기증서를 부만근 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재일교포인 관서제주도민협회장 양철사(회장 양철사)의 제주도 사랑이 33년간 이어져 오면서 제주대에 사랑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다.

지난 1971년 2월 25일 도서 139권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1974년부터 매년 제주대에 책을

전달해 1993년까지 4815권을 기증했다. 이로써 2002년도까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와 도서기금으로 구입한 책을 합치면 총 5981권에 이른다.

제주대 발전을 기원함으로써 제주도의 지역발전 보탬을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예정이며 기부된 기금은 계속 도서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가진 도서기금 기증식에는 양 회장과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회장이 부만근 총장에게 기금을 직접 전달했다.

양 회장은 "고향의 대지를 밟았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해 기쁘다"고 소감을 말하며 "이국땅이지만 제주출신 선현으로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꾸준한 고향 사랑을 내비쳤다.

양호근기자 [journalist@cheju.ac.kr](mailto:journalist@cheju.ac.kr)

## 2학기 교류수학생 21명 파견

## 4개국 7개 대학 ... 이수후 학점인정

2학기 교류수학생 21명이 나가 같다. 사기대학 및 류큐대학을 비롯한 4개국 7개 대학에 지난달 1일 시작으로 모두 파견됐다.

파견 학생들은 대학간 학술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1년 동안 교류학생으로 수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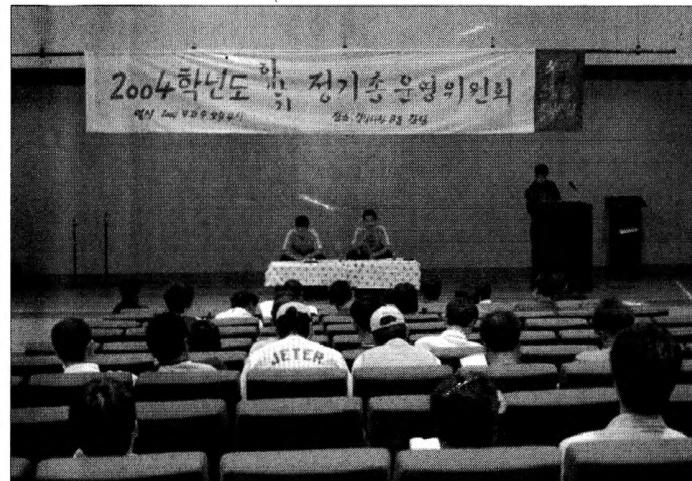
파견국 및 대학 명단은 다음과

이고은(정치외교 3) △중국 남경대학 김진현(중어중문 4) △일본 가고시마대학 강민희(일어일문 3), 김미리(일어일문 3), 부혜진(교류대학원) △오사카 경제대학 홍민경(관광영 3), 김희현(경제학과 2) △중국 천진재경대학 이지원(무역 3), 한정한(경제 3), 강태준(경영 3)

△일본 나가사키 대학 부영미(영어문 3), 일본 류큐대학 박희진(통신컴퓨터공학 4) △대만국립중립대학 남지희(중어중문 3), 김형은(중어중문 3), 이선희(중어중문 3), 양진영(중어중문 3), 김아름(중어중문 3), 김미래(중어중문 3), 양은선(중어중문 3), 김형록(정치외교 4), 원지애 [jate0204@cheju.ac.kr](mailto:jate0204@cheju.ac.kr)

## 2004 하반기 정기 총운영위 개최

## '동아리 자치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현안 보고



▲ 2004학년도 하반기 정기 총운영위가 지난달 22일 경상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운영위에서는 보고인건과 논의인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2004학년도 하반기 정기 총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성표 무역 4, 이하 총운영위가 지난달 22일 재직 87명 중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총운영위는 ▲보고안건 △일반

아래 요구안관련 본부 협상과 진행 과정 처리 △후생복지기금 집행 과정과 집행예산 보고 △상반기 정기 총운영위 공개질의서 답변 보고 △등록금 투쟁을 위한 일일호프 수입

액 사용내역 ▲논의안건 △학생후생복지기금사업 예산 계획서 △2004년 상반기 총학생회 평가서 △2004년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예산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인건에서는 지난 상반기 정기 총운영위 때 총장에게 제출한 공개질의서 내용 중 동아리자치권과 관련 △동아리 대표들과 조속한 시 등록금 투쟁을 위한 일일호프 수입

발전기금은 2004학년도 기성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 지원 △동아리 및 과 행사시 학생봉사 및 학술활동 행사 등에 차량지원 계획,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실시되는 개별적인 놀이문화 행사지원 곤란 △교내외 학교 행사 30인 이상 참가시 의약품 지급 △동아리 행사 중 사고 시 치료비 총액이 1만원 미만이거나 교통사고나 폭력상해로 인한 경우 제외, 학생의료공제회 이용 △제2학생회관 오는 2007년 ~2010년 기간 중 추진 등을 설명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어서도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교육인적 지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을 투자해 장애학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대학과 함께 대해서는 시설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과방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며, 학생회에서 커넥티너를 이용한 학과방설치를 요구해왔으나, 수용 불가 입장은 밝혔다. 다만 커넥티너를 확장해 커넥티너와 함께 학과방을 확장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단과대 우선사업 변경권에 대한 의견, 시범대 후식 공간에 대한 의견, 학내 수익사업에 대한 의견, 도서관 좌석문제에 대한 원지애 기자 [jate0204@cheju.ac.kr](mailto:jate0204@cheju.ac.kr)

## 대학성적 관리 위해 학점포기제 도입 바람직

## 아직 실무검토 안돼 ... 취업 성적관리용 전략 우려도

최근 한양대, 청주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학생의 학점관리를 돋는 학교의 제도적 방안으로 '학점포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점포기제는 이미 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학생의 자의로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수강신청제도의 맹점을 보완한다.

수강신청제도는 수업을 받는 도중 유예기간을 둘 때 학점을 포기할 수 있게 하거나, 전제를 올릴 수 있게 하며, 전제 평점을 올리려면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수업도 재이수를 하는 방법밖에 허용하지 않는다. 학점포기제는 출입인정학점을 초과한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선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해 과목이 없어진 경우나, 성적은 나쁘지만 재차 듣고 싶지 않은 경우 재수강 없이도 평점을 올릴 수 있게 한다.

학점포기제는 각 대학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해놓고 있다.

숙명여대의 경우, 이미 이수한 과목이 폐강되거나 두 학기중 한 번만

있으나 대치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성적을 올릴 방안이 없다.

그밖에도 기존의 제도는 두 학기 중 한 번만 진행되는 과목은 출입을 앞둔 학생들이 한 학기를 더 다녀야만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하며, 전제 평점을 올리려면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수업도 재이수를 하는 방법밖에 허용하지 않는다. 학점포기제는 출입인정학점을 초과한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선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해 과목이 없어진 경우나, 성적은 나쁘지만 재차 듣고 싶지 않은 경우 재수강 없이도 평점을 올릴 수 있게 한다.

학점포기제는 각 대학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해놓고 있다.

숙명여대의 경우, 이미 이수한 과목이 폐강되거나 두 학기중 한 번만

진행되는 과목처럼 재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학기마다 6학점 이내에서 포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대와 같이 허용과목의 범위를 넓혀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출입년도에만 최고 5학점까지 취득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도 있다.

박자숙(간호 2) 학생은 "전공과는 상관없이 받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이러한 과목은 전공생들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들어 수강 신청할 때 고민한 적이 있다"며 "학점포기제가 시행되면 학점에 연연하지 않고 듣고 싶은 강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대평가의 의미를 훼손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학생은 "취업 시 키는 지적도 있다. 한 학생은 '취업 시 학점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학생의 능력과 함께 성실함을 보는 것인데 학점포기제를 도입한 대학의 출입생 학점이 얼마나 신뢰가 가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를 보면, 평강된 과목 중 대치과목이 있는 경우는 포기 신청을 못하도록 하거나,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포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학도 학점포기제를 5학점 이내로 제한시키는 방법으로 과격적인 성적상승이 어렵도록 하고 있다.

서병재 학사관리과장은 "아직까지 학점포기제 도입 요구가 제기된 바가 없어 실무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점이 많이 드러나면 검토 후 도입할 수도 있다"며 학점포기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0204@cheju.ac.kr](mailto:song0204@cheju.ac.kr)

## 양호근 기자가 만나다

## 한글사랑 국어교육과 김태공 교수



## "한글사랑이 곧 나라사랑"

오는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558돌을 맞는 한글 날이다. 우리의 민족어를 반포한 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의 자부심 한글날을 맞아 민족 언어 한글교육에 힘쓰고 있는 김태공(국어교육과) 교수를 만났다.

김태공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을 때 그는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국내 외국인 한글 교육'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 그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한글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인데 언어를 사용하는 한 시대 속에 통신언어로 인해 언어를 끊어버리면 그 언어가 민족의 존재와도 상통한다"고 말하는 그는 민족족을 예로 들며 "민족족은 만주족이여진족을 사용했었지만 중국어를 쓰면서 중국민족으로 통합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여기 제주에서부터 한글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제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한글 교육은 한글을 알리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며 "언어를 알면 그 나라에 대해 더욱 친근감을 갖게 되므로 우리대학이 적극 나서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외국인에 대한 한글 교육 강

# 정기 대의원총회 정족수 부족 '무산'

## '학생대표 의식 결여' 심각 … 72개 중 18개 학과만 참석



▲ 2004학년도 하반기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3일 인문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정족수 216명 중 33명만이 참여해 이날 총회는 결국 무산됐다.

2004학년도 하반기 정기 대의원총회(의장 김승현 해양토목공학 4)가 지난달 23일 인문대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

산됐다.

매해 상·하반기에 대의원총회를 중심으로 대의원(각 학과 대표)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는 대의원총회는 이번 하반기 총회에서 개의 정족수 216명 중 33명만이 참석해 부족으로 무산됐다.

참석한 학과는 인문대 사회학과, 법정대 행정학과, 경상대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경영학과, 농생대 식물자원학과, 원예생명과학과, 해양대 해양토목학과, 해양화과, 자연대 생명과학과, 전신통계학과, 체육학과, 가정관리학과, 의예과, 공과대 전자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의과대 의학과, 야간 관광경영학과로 총 72개 학과 중 18개 학과만 참석해 학과대표들의 학생대표의식이 상당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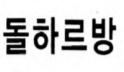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학과 대표들만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

정됐던 보고안건과 의결안건 중 보고안건 '총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상반기감사보고, 대위원회 일만아리 요구안 사용내역' 만이 이뤄졌다.

의결안건인 '상반기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데 대해 김승현 의장은 '논의 안건에서 상반기에는 예산안 관련 안건이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나 이번 하반기에는 관심안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표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고 각 학생회끼리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며 '학내에서는 국회와 같은 대의원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참여를 호소했다.

양호근 기자 [journalist@cheju.ac.kr](mailto:journalist@cheju.ac.kr)



## 돌하르방 열정적인 도전정신 아쉬워

4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유

력 언론사에 입사한 한 선배가 내려왔다. 그 선배는 지금의 생활에 안주해 있는 우리를 꼬집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보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월만하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라는 것이다.

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제주대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쳐놓은 경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 내재화되어 있는 환경들, 평범한 속에서 혼난한 다른 도전을 끼어한다. 높은 이상을 향기로운 현실에 안주해 편한 생활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요즘 아무리 취업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꿈 있다면 밀밭부터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분명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대학 학생들은 그런 도전의식이 많이 부족하고 전보다 더욱 용기가 결핍돼 있다.

본지가 연재하고 있는 '나는 달린다' 제대인 인터뷰를 읽다보면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에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워질 때가 많다.

지난해 9월 제대인 인터뷰 5번 째 주인공 현상민(삼성 무선사업부 책임연구원)씨는 '2003년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에 선정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전공한 디자인을 하는 곳이 아니라 컨셉을 짜거나 홍보를 담당하는 팀에 파견됐다.

다른 사람들은 '좌천된 것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 많았다. 하지만 그는 '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 잔머리를 굽리지 않았으며 더 좋은 기회를 찾으려고 애쓴다'는 눈치를 보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항상 새로운 환경을 즐겼다. 결국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들이 바탕이 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컨셉을 제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꿈을 때 많을 것을 보고 겪어야. 그리고 항상 즐겁고 밝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삶은 아름다워 한다. 그래서 제주뿐만 아니라 한국 어디 가서든 개척적인 제대인이 돼야 할 것이다.

김현주 문화부장

## 2004학년도 연구과제 6억여원 지원 받아

###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 연구지원 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이 주최한 2004학년도 연구과제 공모에서 제주대가 각각 2억7581만2000원과 3억3000만원 등 총6억여원을 지원받는다.

연구과제는 2004년 기초화분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 2004년도 기초과학연구 신규과제, 2004년도 특성기초연구 과제, 우수여성과학자 신규과제이다.

다음은 연구과제와 지원주체, 선정과제다.

▲2004년 기초화분 인문사회분

야지원사업,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김희철(두역학과 교수) - 일제하 제주지역의 기업가 연구 △김원보(한영과) - 제주방언: 분절음 및 초분절음의 음향 음성학적 분석 및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4년도 기초과학연구 신규과제,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오문유(생명과학과 교수) - 제주도 고대 포유동물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연구 ▲2004년도 특성기초연구 과제, 한국과학재단 지원 △김경연(전자공학과 교수) - 임피던스 영상 복원을 이용한 공정 감시 기술 개발

△김태균(수의학과 교수) - 퇴행성 뇌질환에서 신경계 조직의 반응과 조직재생 기전 연구 △정승달(정보수학과 교수) - Basic Dirac 연산자 횡단적 Twistor 연산자에 관한 연구 ▲우수여성과학자 신규과제, 한국과학재단 지원 △지영훈(수의학과) - 흐름에 따른 정량적 지표 개발 △김신해(의학과) - 인슐린수용체의 디로신(의학과) - 인슐린수용체의 디로신 인산화효소활성 비의존적 신호전달계가 포도당대사 및 세포사멸 억제에 미치는 영향 △나수연(건축학부) -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원지애 기자 [fate0204@cheju.ac.kr](mailto:fate0204@cheju.ac.kr)

## 노후 가로등 연말까지 교체

### 예산부족으로 전체 교체는 힘들 듯

학내 가로등이 염해에 의해 부식, 위험예방으로 지난 8월 26일 기로등 설치업체와 계약을 맺고 8월 30일부터 가로등 교체에 본격적으로 착공했다.

따라서 가로등 한 본의 가격은 180만원으로 총 사업비 217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로등 교체는 우선적으로 외부인의 염해가 찾은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에 따라 교체범위를 넓혀

갈 예정이다.

교체되는 가로등은 이전 가로등과 비교해 부식이 심했던 페일이 아닌 최근 만들어지는 가로등과 같은 스테인리스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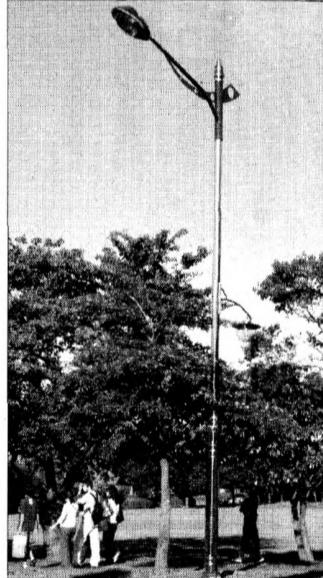
시설과 고승우씨는 "부식이 심한 가로등은 폐기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옮기면서 우선적으로 진입로만 교체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로 부식된 가로등을 완전 교체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쳐리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부식된 가로등을 완전 교체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시설과 고승우씨는 "부식이 심한 가로등은 폐기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옮기면서 우선적으로 진입로만 교체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로 부식된 가로등을 완전 교체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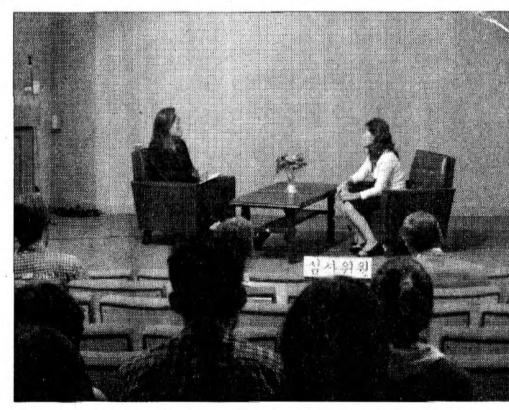
양호근 기자 [journalist@cheju.ac.kr](mailto:journalist@cheju.ac.kr)



▲ 진입로의 교체된 가로등

## 영어말하기대회, 금상에 강현주양

### 고등부는 송한님양 수상



▲ 공과대 C동 세미나실 열린 제25회 영어말하기대회

제25회 영어말하기대회 본선이 지난 1일 공과대 C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언론·출판센터(주간 김진영 사회과 교수) 영자 신문 The Islander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대학부, 고등부로 나눠 1부-생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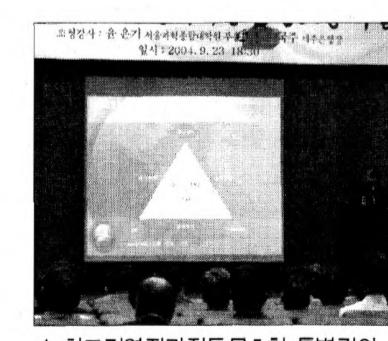
어, 2부-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학부  
△ 금상-강현주(영어영문 4)  
△ 은상-김민건(관광경영 3)  
△ 동상-조혜란(관광경영 2)  
△ 장려-오상철(관광경영 2)  
△ 장려-송한님양(외국어 1)  
△ 은상-이재준(대기고 1)  
△ 동상-김원수(신성여고 2)  
△ 장려-김원수(사대부고 2), 장종윤(사대부고 2)

김정미 기자 [jung@cheju.ac.kr](mailto:jung@cheju.ac.kr)

## "아날로그 세대 정리해고는 시대 흐름을 감지 못한 탓"



▲ 최고경영자과정동문초청 특별강의  
경영대학원(원장 허진경 관광경영 교수)은 지난달 23일 경상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인재경영과 뉴리더쉽', '제주자치도인가'를 주제로 최고경영자과정 세미나를 열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윤은기 서울과

대학원(원장 김진영) 회장은 '인재경영과 뉴리더쉽'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40대 이상의 아날로그 세대가 대거 정리해고되고 있는 것은 학력, 경력,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20~30대 디지털 세대가 주도하는 속도의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국주 제주 은행장은 '제주자치도인가' 발 표에서 "길거리 쓰레기와 없애고 주정차 위반 점수 단속, 주택가 이면도로 인도 설치 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주자치도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cheju.ac.kr](mailto:song@cheju.ac.kr)

##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은행 공식기구 인정 앞둬

### 특산식물·해외자원 식물 유전자 서비스

제주지역 자생 동·식물과 해양 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한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은행'(은행장 이선주 환경과 교수)이 정식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평의회 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지역 특산식물과 해외자원 식물을 수입하는 등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웃나라 알자" 미니포럼 열려

사회과학연구소, 월례행사로 추진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이경원 행정학과 교수)가 교수회관에서 지난 달 22일 일본문화 체험회를 주제로 미니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웃나라에 대해 알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달 열릴

월 30일까지 10개월간 총 2억 2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공과대 첨단기술 연구소장인 이관만(전자공학과) 교수가 사업 수행 책임을 맡는다.

이 교수는 "e-Learning과 인력 양성을 통해 미취업 졸업생 및 취업한 8개 업체와 제주대를 비롯해 정부지자체, 참여 기관 등으로부터 총 70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사업은 (주)다음을 비롯한 8개 업체와 제주대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 제주지역 특산식물과 해외자원 식물을 미처 선정한 사업이다. 지역혁신을 이루는 지역의 산업체, 학교 등의 역량을 힘으로 모으는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과 산학 디자털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활용해 지역적 마케팅을 제시,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서에 따르면 (주)다음은

제주대에 지난달 1일부터 다음해 6

월 30일까지 10개월간 총 2억 2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공과대 첨단기술 연구소장인 이관만(전자공학과) 교수가 사업 수행 책임을 맡는다.

이 교수는 "e-Learning과 인력 양성을 통해 미취업 졸업생 및 취업한 8개 업체와 제주지역 특산식물과 해외자원 식물을 미처 선정한 사업이다. 지역혁신을 이루는 지역의 산업체, 학교 등의 역량을 힘으로 모으는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과 산학 디자털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활용해 지역적 마케팅을 제시,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주 기자 [dmswm@cheju.ac.kr](mailto:dmswm@cheju.ac.kr)

### "장의력·독창력 있는 인재 절실"

전자공학과 주최, 제주지역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청특강

전자공학과 학생회(회장 김용범)는 지난달 23일 공과대학 3호관 세미나실에서 제주지역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청특강을 열었다.

권영철 전 행정부지사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제주이전, 제주밸리 테크스 시범도시구축, IT협동연구센터제주분소설립, 지방대학혁신역량 전진력", 김동호 JS소프트 대표이사

의 '제주IT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학의 역할' 발표가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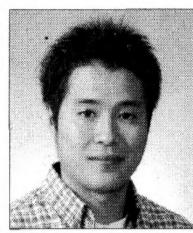
권영철 전 행정부지사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제주이전, 제주밸리 테크스 시범도시구축, IT협동연구센터제주분소설립, 지방대학혁신역량 전진력", 김동호 JS소프트 대표이사

는 창의력·독창력 있는 IT분야의 인재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호 JS소프트 대표이사는 "앞으로 5년간 제주도는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며 "그 변화세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자신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cheju.ac.kr](mailto:song@cheju.ac.kr)

## 아라함성



## 학생회비 제대로 걷자

김주연(정치외교 3)

“학생회비를 뒷 하더 내나 돈 아깝게”, “난 3학년 이후로 내지 않기로 했어”, “정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전 학우들과 과방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학생회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왜 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는 학우들도 많았다. 학생회비는 비록 6000원 밖에 되지 않지만 만 약 1만 명의 돈이 모이면 무려 6000만원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왜 이러한 학생회비가 학우들에게 안 좋게 비춰지고 있고 아무런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을까?

평소에도 학생회비에 많은 의구심을 품어왔던 필자는 우선 학생회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를 관리하고 감사한다는 대의원회를 찾아가 봤다. 찾아가보니 지난 1학기 등록 과제 제주대학교 총 등록자 9813명 중 6918명 (70.5%)의 학우들만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걷혀진 돈이 모든 학생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다. 학생회비는 각 단체 학생회 및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대의원회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 및 기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곧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30% 가량의 학우들도 버젓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복지 혜택 등을 제공 받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니 학생회비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이 안 좋아 질 수밖에 없다. 어찌 일부 학생들이 낸 돈만을 가

지고 공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단 말인가. 학생회비를 낸 학우들과 그렇지 못한 학우들에 대하여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 게 분명하다.

모든 게 확실해야 하는 요즘 사회에서 이 문제는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무슨 이유에선지 몰라도 학교당국은 학생회비 다른 기를 많이 끼려해왔다. 그들이 학생회비 납부자의 80% 이상이 1, 2학년 학생들인 점을 감안해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또한 문제다. 어찌 보면 학생회비는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어떠한 조직체에서도 회비를 내지 않고선 그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여겨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비 내기를 간과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대학생으로서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걷혀진 돈이 모든 학생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다. 학생회비는 각 단체 학생회 및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대의원회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 및 기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곧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30%

가량의 학우들도 버젓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복지 혜택 등을 제공 받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니 학생회비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이 안 좋아 질 수밖에 없다. 어찌 일부 학생들이 낸 돈만을 가

## 여론

## 나는 달린다 제대인 인터뷰(28)



양익철 (75년 수학교육 졸업) 안산 교육청 장학관

## 넓은 세상을 보고 꿈을 펼쳐라

열악한데 교육환경만 높이려 한다면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부담이 된다.”

- 현재 시범대와 교육대학의 통합이 구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차 교육과정은 초등과 중·고등의 개념이 없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보면 초등과 중·고등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문화나 교육환경을 보고 배워서 좋은 점은 우리 교육에 맞게 개선해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또 이러한 연구와 경험들을 가지고 후에 제주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다.”

-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요즘은 컴퓨터에 모든 정보나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 수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희생과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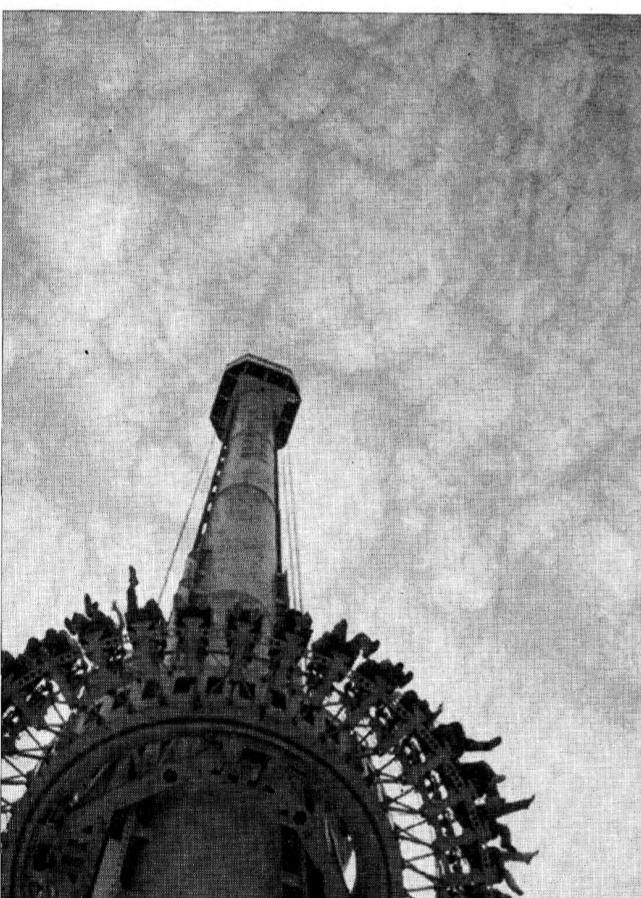
“제주도를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요즘 취업률이 낮다고 하지만 제주도를 벗어나 세계를 바라보면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선생님이나 의사, 공무원 같이 우리가 이는 훈련 직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는 일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넓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

장혜린 기자 leo44@cheju.ac.kr

## 〈주요 악력〉

- 1951년 서귀포 출생
- 1970년 오현고등학교 졸업
- 1975년 제주대 수학교육 졸업
- 1978년 연세대 대학원 졸업
- 1994년 포천교육청 장학사
- 1995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1999년 수성고등학교 교감
- 2002년 초지고등학교 교장
- 2004년 안산교육청 중등교육과정 장학관

## 독자, 세상을 품다



## 자유로드롬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사람들은 불안해 하면서도 위험을 원한다. 서울 롯데월드에서.

양훈모(동양어문 1)

## ◆ 독자 참여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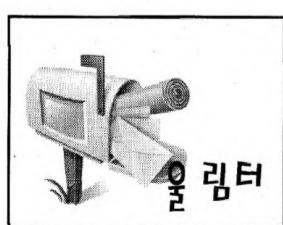
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찍은 사진을 본지에 실고 있습니다. 자유주제로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기다립니다. 덧붙여 독자 여러분의 기사에 대한 쓴소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도 기다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치: 본관 3층 제주대신문사 편집국

▲ FAX: 756-2204, 전화: 754-2279

▲ 인터넷 사이트 (<http://cnypress.com>, mail: press.cheju.ac.kr)

원고 또는 사진을 보내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므로,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하십시오.



## 캠퍼스 곳곳에

## 이름을 달자

대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필자는 아직 대학생활에 대해 만족이라

는 단어보다는 적응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제주대의 모습이라도 알고자 친구와 두루 학교주변을 돌아다니며 보고 하는데, 항상 대학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고 한다.

특히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서 보이는 대학의 전경과 바다를 바라볼 때나 학생회관 옥상에 서서 한라산을 바라볼 때, 빛과 그림과 같은 등고 길을 걸을 때 마음이 편해짐을 느끼곤 한다.

하루는 한창 감상에 젖어 주위를 구경하고 있는데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 때, 문득 떠오른 것은 친구가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은

한나뿐이기에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쳐다봤다는 것이다.

마치 김춘수 님의 ‘꽃’이라는 시처럼, ‘어린 왕자’에서 여우의 이름과 관계에 대한 조언처럼 말이다. 그리고 문득 ‘왜 제주대의 이름다운 곳들은 이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곳곳마다 특별한 이름이 주어진다면 오르기 전부터 걸어는 중앙도서관 오르막길의 108계 계단도 조금 더 즐거운 계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칭하는 ‘아외박물관’은 넓은 장소란 뜻의 ‘너른장’이란 이름을 지어 준다면 전시되는 작품에도 더욱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고 단

순히 대학 안에 가장 큰 도서관이라는 지침일 뿐인 ‘중앙도서관’도 고유의 이름을 붙여준다면 도서관이 딱딱하게만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모아진다면 일단 아리안의 보금자리인 대학이 더 경고하고 생기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를 만들어나갈 때 좀 더 나은 학교가 우리 앞에 자리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대학 캠퍼스 내에 아름다운 장소와 건물에 아름다운 이름이 하

교를 소망해본다.

정영윤(해양과학 1)

하나뿐이기에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쳐다봤다는 것이다.

마치 김춘수 님의 ‘꽃’이라는 시처럼, ‘어린 왕자’에서 여우의 이름과 관계에 대한 조언처럼 말이다. 그리고 문득 ‘왜 제주대의 이름다운 곳들은 이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곳곳마다 특별한 이름이 주어진다면 오르기 전부터 걸어는 중앙도서관 오르막길의 108계 계단도

조금 더 즐거운 계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칭하는 ‘아외박물관’은 넓은 장

소란 뜻의 ‘너른장’이란 이름을 지어 준다면 전시되는 작품에도 더욱 생

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함께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어 준다면 그곳은 대학의

기억과





## □ 한국 노숙자 실태

## 여성 노숙자 올들어 31% 급증

## 겨울 문턱 앞둬 노숙자 복지대책 시급

홈리스가 내뱉는 매캐한 냄새를 맡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홈리스 인권을 말하던 내가 그 홈리스의 곁을 피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직 무의식 속에는 홈리스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숨어있었나 봅니다. -홈리스(Homeless) 편집인-



장기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가장 불화로 거리에 뛰쳐나온 여성 노숙자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노숙자가 지난해 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2003~2004 노숙자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 각지의 노숙자 쉼터에서 접제된 여성 노숙자가 지난해에 비해 3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여성 노숙자를 포함한 노숙자들의 삶과 복지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은 홈리스 잡지를 통해 노숙자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숙자란 "주거를 상실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정확한 의미는 홈리스(homeless)"라며 "거리에서 숙식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홈리스 지원 정책의 대상 범위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9일 복지부는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에고 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과 비

교해 노숙인보호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부랑인보호'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로, 제34조 제4항 중 '부랑인보호'를 각각 '부랑인·노숙인보호'로 바꿔 '노숙인'이라는 단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됐다. 그러나 아직도 노숙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노숙자 선교회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일 목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주일에 화, 목, 토요일에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점

심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며 "일주일에 3번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받고 있지만 자금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숙자 중에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를 도와줄 의료시설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과 관련된 법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남기철(동덕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노숙인 복지 제도화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규적인 프로그램으로 재편될 기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의 위상과 정착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중 남기철 교수는 '드롭인센터(drop-in center)'의 중요성을 말했다.

노숙인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주거'를 상실한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시각은 밝지 않다.

연말이 되면 흔히 '불우이웃을 도웁시다'란 구호를 외치며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만 노숙자들에게는 싸늘한 눈초리를 보낸 것이 사실이며 우리의 이웃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신보건, 알콜 및 약물중독, 아동과 청소년, 여성복지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보호센터의 명칭으로 더 알려져 있다.

남기철 교수는 "아직 드롭인센터

고선주 기자 saintsj@cheju.ac.kr

## 일주일브리핑

## '북한인권법' 미 상원 만장일치 통과

◆ '성(性)파리치' 제도 도입 물의 경찰은 성매매 범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오는 11일부터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진행중인 '성(性)파리치' 도입 논란 설문조사에 따르면 6일 현재, 1만 8000여명 중 75%에 달하는 네이트온이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성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등장이 꼽힌다. 이들이 성매매 현장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것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당사자를 협박할 수 있다는데 맹점이 있다. 누구라도 경찰수사로 망신을 당할 빠야 큰 돈을 주고서라도 일을 무마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여한 한 네이트온은 "신고자들이 성매매 범죄자를 협박할 경우 성매매보다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을 물게하면 어떨까요?"라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음지에 신재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파리치 제도의 도입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 미국, 북한 인권문제 개입

최근 미국 상원은 막대한 규모의 연방예산을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투입함으로써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북한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 연간 200만달러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북한의 민간인들에게 라디오를 공급, 매일 12시간씩 들을 수 있는 대북 방송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와 개인들에게는 최대 2000만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북한인권법은 인도적 당위성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대북 압박 수단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차적으로 국회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 ◆ 한국근로자 행복지수 세계 10위?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근로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행복지수 세계 1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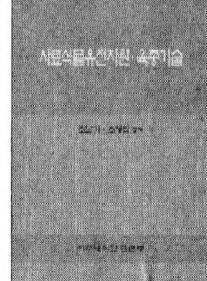
그러나 경제적 행복지수 계산방법은 '자녀 2명을 둔 기혼 가정이 연소득 5만 원으로 벌었을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장비'를 뺀 금액으로 체감행복지수와는 관계가 없다. 무역협회가 조사한 다른 통계를 살펴면 한국 근로자의 체감 행복 지수는 오히려 낮은 순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노동기구가 소득인정, 노동시장 안정, 고용보호, 작업 안전도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조사한 경제인정 지수는 90여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다. 또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 도시생계비는 뉴욕(100)을 기준으로 1위 도쿄(130.7), 2위 런던(119)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이 104.1로 7위를 차지했다.

송수연기자 song@cheju.ac.kr

## 출판부 신간 도서 안내

## 사료식물 유전자원 · 육종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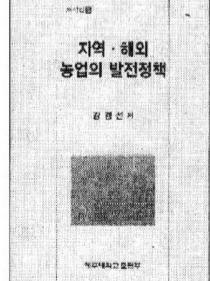
조남기,  
조명일/공저

2004/4×6배  
판/양장/400면/  
값 16,000원

우리나라의 세계 여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생태종 및 재배종 중에서 사료작물로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종의 지리적 분포, 유전적 특성, 품종 및 계통의 육성, 유전자원 보존 및 육종기술 등을 종합해 정리했다.

본 문헌을 대학생, 대학원생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함으로써 사료식물의 육종 기술이 체계화 될 수 있고, 또한 이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 · 해외농업의 발전정책



강경선 저

2004/신국판/  
양장/516면/  
값 14,000원

이 책은 저작집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다섯 번째의 것으로 지역농업과 해외농업의 발전문제를 함께 구성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지역 농업의 발전을 현재의 화학농법에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의 대전환을, 그리고 소품목·대량생산체계를 경종과 축산이 유키적으로 결합, 다품목·소량생산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 수산해양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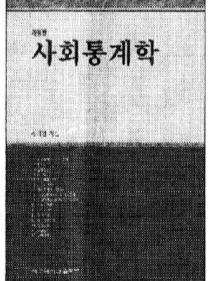


노홍길, 김동수,  
김상현/공저

2004/크라운  
판/반양장/  
1264면/값  
11,000원

합리적인 수산자원 조성이나 관리 및 수산업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산생물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밝혀 수산자원 변동기구의 해명, 어장탐색법의 과학화, 어해황 예보 기술의 정도 향상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산업과 관련된 해양학적 기초지식, 어장 환경과 어장 형성 기구, 어장환경과 어류의 분포, 등을 위한 위상 정보의 이용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이 담긴 강의 교재가 있어야 한다.

## 개정판 사회통계학



정대연 저

2004/4×6배  
판/반양장/  
1524면/값  
15,000원

한국에서 통계적 분석 기법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학문뿐만 아니라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 실천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 분석 수준도 깊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가자격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도 신설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통계적 분석 기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책은 저자가 1992년에 출간한 '사회통계학'을 보완한 개정판이다.

## 중국의 山山水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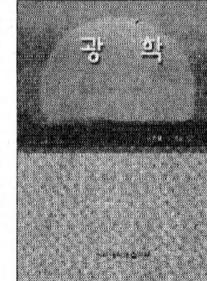


손오규 저

2004/신국판/  
반양장/560면/  
값 12,000원

이 책은 저자가 2003년 중국에서 1년간 생활하며, 그 곳의 자연과 역사문화유적을 답사하고 일기 형식으로 저술한 신수유기로서 여행기이다. 또 저자는 산수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미학적 근원을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을 통해 본 동양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과 풍속에 대한 평식과 이해 및 감상을 위주로, 전통적 기행문의 아름다운 구성을 시도하였다.

## 광학



김두철·유영훈  
편저

2004/4×6배  
판/반양장/228  
면/값 9,000원

반사와 굴절, 얇은 렌즈 등을 포함하는 기하광학과 간섭과 회절의 특성을 다루는 광동학 및 양자광학의 기초 분야를 취급하여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광학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면접시,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 보여야



▲ 모 험공사의 면접 모습

회사는 직원 채용시 지원자를 살펴 원하는 인재를 가려낸다. 그리고 그 뽑은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며, 회사의 상황이나 경영상태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회사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취업이 순조로울 것이다.

자기소개는 보통 1~2분 정도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 회사와 연관되는 얘기를 하는 게 좋다.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일을 잘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도록 이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장점을 부각시켜 최대한 자신이 회사와 잘 맞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서류전형보다는 면접이 중요한데,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모 단정하고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 뿐지 않는 모습이 중요하다.

면접관 시절, 한 친구가 남자인데 귀걸이를 하고 온 적이 있다. 왜 귀걸이를 하고 왔나고 물자, '난 평소에 귀걸이를 하는데, 면접이라고 해서 날 속이긴 쉽다'고 대답했다.

당당한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뽑지 않았다. 100명 중 10명은 회사에서 이탈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미 그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무난한 사람이 들어와 회사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 또 '5년 후, 10년 후 모습을 말하라'는 질문은 많이 한다. 대답으로는 '과장, 또는 차장이 돼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까'가 정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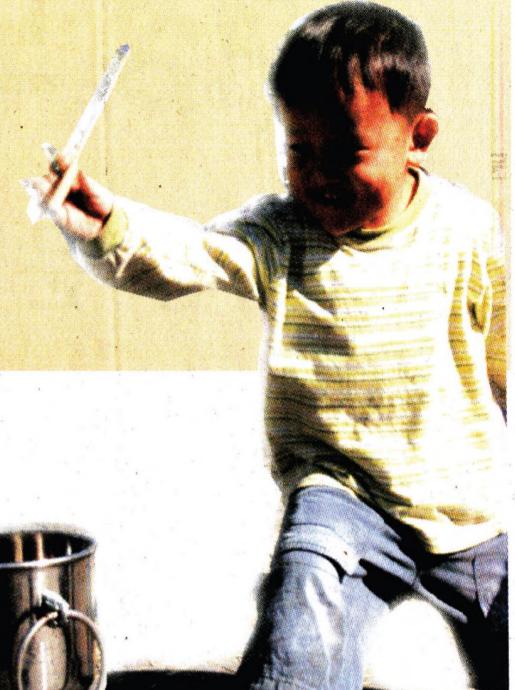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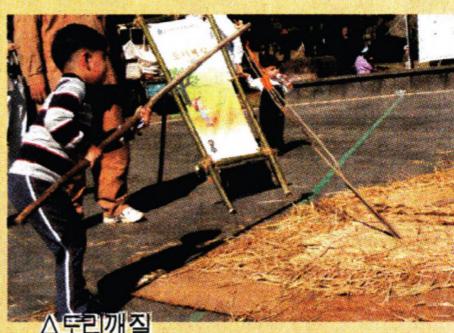
1차 면접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묻고, 사장·임원들이 맡는 2차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가치관을 묻는다. 요즘 같아서는 국보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던지, 이같은 경우에는 답은 없지만 가치관이 확고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 신문을 잘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면접에서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우쭐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경우는 뽑을지 말지,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다. 질문을 안 받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다. 질문을 안 해도 될 만큼 인정받은 사람, 질문을 안 치고 가치도 없는 사람. 질문을 안 해도 될 만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 자기소개를 잘 해야 한다.

(이대우 한화(주) 인사차장이 발제한 '취업과 직업의 세계'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송수연기자 song@cheju.ac.kr

제43회 탐라문화제  
전통놀이 한마당 체험



## 전통놀이, 그 신나는 체험 속으로 풍덩~

“할머니 이게 뭐야?”

“이건 옛날 사람들이 쓰던 물통이야. 표 주박으로 물을 떠서 이 안에 담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져오곤 했지.”

맑고 청량한 날씨가 기침임을 무색하게 하는 주말의 오후, 간만의 주말나들이로 ‘탐라문화제’ 행사를 찾은 원복회(55·제주시 이도1동)씨는 어린 손자 녀석에게 ‘물허벅’을 설명하기에 바빴다.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어깨에 메는 손자 녀석을 보니 40년 전 물허벅을 지고 다녔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 잠시 추억에 잠겼다.

이렇듯 기성세대들에게는 추억을,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경험을 주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체험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열린 제43회 탐라문화제 행사장인 신산공원을 찾았다.

문화재 체험행사, 전통놀이 한마당 등 갖가지 체험행사로 이뤄진 행사장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구성돼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며 충분했다.

특히 도리깨질, 고래풀기(맷돌갈기), 투호, 물허벅지기 등 제주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유난히도 북적였다.

곡식의 이삭을 거두기 위해 도리깨질 곡식을 두드리는 제주전통의 ‘도리깨질’은 옛 어른들이 사용하던 갈다란 체 모양의 도리깨질을 그대로 복원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도리깨를 두 손에 꽉 쥐고 엄마처럼 이렇게 둉글거 둘러서 탁 치는 거야.”

초등학생인 딸에게 도리깨질을 가르치며 손수 모범을 보이는 최은경(38·제주시 노형동)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도리깨로 유채 두드리는 것을 많이 봤다”며 “오늘 처음 해보는 도리깨질에 어린아이마냥 재밌고 신이난다”고 말했다.

문화재 체험행사, 전통놀이 한마당 등 갖가지 체험행사로 이뤄진 행사장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들은 사람스런 제자가 된다.

“애구 힘들어”

손잡이를 잡고 맷돌을 둘리는 고사리 손이 힘겨워 지자 엄마가 이를 돋는다.

“이건 ‘맷풀’이라고 곡식을 가는 데 쓰였던 농기구야. ‘믹서기’ 알지? 옛날 믹서기가 바로 맷돌이란다.”

행사장에 준비된 쌀을 맷돌 구멍에 넣고 돌리자 흰 쌀 가루가 나온다. 큰 알갱이 하나 없이 고르게 갈아진 쌀가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 한다.

이날 딸과 함께 ‘고래풀기’(맷돌갈기) 놀이를 체험한 양향숙(30·제주시 도남동)씨는 “맷돌갈기를 해보니 어릴 적 맷돌에 다 콩을 같아 콩국수를 만들어주던 어머니의 손맛이 생각난다”며 “그리운 그 맛을 딸아이와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어린시절을 추억했다.

말로만 들어왔던 우리네 전통문화를 손수 만져보고 직접 참여하는 4일간의 ‘탐라 놀이 한마당’ 축제는 평소에 접할 수 없던

가자들은 꼳질 따라했다.

풀을 뱉어 향아리에 화살을 연신 집어 넣는 운주필(광양교 2군)은 “오늘 처음으로 투호를 해보았다”고 한다. “통 속에 무언가를 던져서 끌어내는 놀이가 많아서 어색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필군은 “투호가 무었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재밌다”고 말했다.

윤주필 어린이처럼 대부분의 어린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놀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른과 함께 온 어린이들은 어른의 설명을 통해 체험을 배움으로 이끌고 돌아갔지만 어른과 동행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놀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체험만 하고 돌아갈 뿐이었다. 좀 더 체계적인 설명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이 아쉬운 순간이었다.

말로만 들어왔던 우리네 전통문화를 손수 만져보고 직접 참여하는 4일간의 ‘탐라 놀이 한마당’ 축제는 평소에 접할 수 없던

놀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백문이불여일견’ 이란 옛말처럼 많은 참석자들은 책을 통해 백번 본 것보다 한 번의 체험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문화를 알리는 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체험행사로 선보인 제주도 놀이가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다양한 제주의 놀이가 체험행사로 선보여졌어야 했지만 제주도의 문화를

알려는 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체험행사로 선보인 제주도 놀이가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다양한 제주의 놀이가 체험행사로 선보여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여진 체험행사가 ‘도리깨질’과 ‘물허벅지기’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은 ‘제주전통놀이체험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놀이가 알마지 않아 실망했다’는 김모씨(26)의 말처럼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이렇듯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제주도 전



통놀이에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 했다.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자가 ‘축제’라는 무대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행사 통해 이뤄진다면 좀 더 많은 이들이 제주전통놀이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제주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한다.

김정미 기자 jung@cheju.ac.kr



“파울로 코엘료 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 “다른 사람이 미쳤으면 나도 미쳐야 한다”

때문에 여기서 나가기를 원치 않죠.” 본문 내용 중 정신병원 원장 이고르 박사가 패닉 신드롬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마리아에게 다르다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대목이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의 광기와 생에 대한 열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한 인간의 생에 대한 열정보다는 소위 정신병자와 불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상인이나 생각하는 우리들이 정신병자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저자 파울로 코엘료의

생각이 더욱 흥미롭다.

이 책의 주인공 베로니카는 26살의 안정된 직업을 가진 소위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라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여성이다. 그런데 왜 베로니카는 죽기로 결심했을까?

자신의 불안정한 소망보다는 안정된 직업과 적당한 페락을 즐기는 베로니카. 그녀는 자신의 미래조차 자신이 정해 놓은 를 안에서 이루어 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아무것도 이르지 못한,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라고 그녀는 결론 내렸다. 모

험도 꿈도 없는 베로니카는 지리멸렬한 삶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다양한 수면제를 복용한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뜬 곳은 죽음의 세계가 아닌 정신병원. 처음 그곳에 입원하게 된 것에 당황하며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미쳤다는 것은 정상인들과는 조금 다를 뿐 공포스러운 것이다. 아버지와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가 만난 사람 중 제드카는 미쳤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자신을 정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미쳤으면 나

도 미친 척 해야 정상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

우리는 집단 또는 사회라는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정신병자와 취급받지 않기 위해 정상인인 척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자질, 본능, 페락의 형태, 모험을 추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는 집단적인 행동양식을 강요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사회가 정해 놓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들을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계바늘이

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시계바늘이 오른쪽으로 도는 것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신을 절제해 왔을 것이다. 자신이 소망하는 직업이 아닌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만 해왔을 것이고, 결혼 정년기와 되면 결혼할 반려자를 찾아 결혼하고 애 낳고 기르면서 남은 생을 마감할 것이다. 뻔한 레퍼토리 인생, 이런 안정된 삶 속에서 소위 정신병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난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라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삶의 힐링 소리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한줌의 광기를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현주 기자 kynikos@cheju.ac.kr

**제주대학교는 제주지역 최초로 고등교육의 장(場)으로서 문을 연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간의 교사(校史)와 발전과정을 담은 각종 기록물과 자료를 수집하여 상설 전시하고자 합니다.**

**제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동문, 학부모, 교직원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大學史 자료수집 대상〉**

【종이물】 간행물, 팜플렛, 학생증, 학위증, 각종 신분증, 상장 등  
【사진 및 미디어자료】 음반, 각종 행사 및 활동사진, 캠퍼스사진, 편집물 등  
【기념품 및 비품】 마크(교표), 상패, 문진, 행사기념품, 페넌트, 뱃지 등  
【복식자료】 교복, 체육복, 학군단복 등

제주대학교를 상장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를 망라하여 수집합니다.

자료기증에 관한 문의는 제주대학교 총무과 (☎ 754-2073, 이메일: asap@cheju.ac.kr)로 연락주시오.

**제24회 백록 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학교 개교 제52주년과 언론출판센터의 제주대 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4회 백록학술상을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제주대학교(원) 제 학생(박사과정 제외)  
**〈일반논문(A4 15~30매 내외)-인문사회, 자연과학 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  
**〈시상〉**

- 학부생 : 당선작 : 총장상 및 부상 50만원  
가작 2편 : 총장상 및 부상 30만원
- 대학원생(박사과정 제외) : 당선작 : 총장상 및 부상 50만원  
가작 2편 : 총장상 및 부상 30만원

**〈접수방법〉**  
제주대학교 언론출판센터 제주대신문 편집국 ( 출력물과 디스켓 동시 제출)  
우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언론출판 센터 제주대신문  
**〈접수마감〉**  
2004년 12월 4일(토) 13:00까지  
등기우편인 경우 ‘백록학술상 응모작품’ 명기(연락처 반드시 기재)  
**〈당선작 발표〉** 제주대 신문 2005년 신년호  
**〈기타 문의〉** 제주대학교 언론출판센터 T 754-2278

제주대학교 언론·출판 센터